

<2017년 7월 26일 수요일 말씀>

나쁜 습관과 버릇은 고질병이니 고쳐라

본 문 전도서 12장 14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

- **그릇된 습관과 버릇은 고질병이니 고쳐라.** 에 대해 말씀했습니다.

◎ 오늘은 같은 주제로 주일에 못다 한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.

이해하기 쉽게 <잠언>으로 하나씩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 주일말씀 반복 잠언

◆ <습관>은 ‘생각’에서 온다.

뇌에 그 생각이 입력되니,

그 시간이 되면 꼭 잊지 않고 그 생각대로 ‘행동’하게 된다.

그 행동을 몇 번만 하면, <습관>이 된다.

몇 번 할 때 못 고치면, 점점 고치기 힘들어진다.

나중에는 <뇌>가 그쪽으로 굳어서 그 행위가 편하다.
그것이 체질이 되어 <몸>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해진다.

- ◆ 말투, 행동, 성격, 게으름, 서운함, 식생활, 생활 등 습관이 들면
하나님이 고치라고 해도 못 고친다.

<습관>이 정말 무섭다. 고로 시작될 때, 몇 번 할 때 고쳐야 된다.

나무가 크면, 손으로는 못 뽑는다. 어릴 때 뽑아야 된다.
<습관>도 그러하다.

- ◆ <잘못된 습관>으로 인해
얼마나 손해가 가는지, 얼마나 원하는 것이 안 되는지,
얼마나 축복을 못 받는지, 얼마나 하는 일이 안 되는지,
얼마나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지,
얼마나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는 데 지장이 되는지 알아라.

<자기 육의 습관>을 ‘자기 혼과 영’도 가지고 있으니,
안 고치면 막대한 손해가 간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말투가 험하고 반말을 일삼고 욕하는 자>는
안 좋게 습관이 들고 버릇이 되어서다.
- ◆ <시간을 안 지키는 자>는 안 좋게 습관이 들고 버릇이 되어서다.
- ◆ <시간을 잘 지키는 자>는 좋은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<자주 안 씻는 자>도 안 씻는 쪽으로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<자기 건강에 신경 쓰지 않고 전심으로 관리하지 않는 자>도
그렇게 습관이 들어서다.

이 습관을 고치고 <자기 건강에 신경 쓰는 습관>을 들여야
후에 ‘생명의 해’를 당하지 않는다.

◆ <감사할 일이 있어도 안 하는 자>는 안 하는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<삼위를 진정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면서 대화하며 살지 않는 자>는
안 하는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<화평하지 못하고 불평불만 하는 자>도 나쁜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<자세>도 ‘습관대로’ 다. 습관이 든 대로 앉고 선다.

◆ <정상>을 잃으면 ‘비정상 습관’이 든다.

◆ <자꾸 싸우고 다니는 자>도 나쁜 습관이 들어서다.

◆ 교역자들이 ‘나쁜 습관’이 들어서 계속하니,
단상에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안 된다고 많은 보고들이 올라온다.

나쁜 습관을 안 고치고 계속하면, ‘목회 자격 상실’이 된다.

◆ <주와 소통하지 않는 자>도
소통을 안 하는 쪽으로 뇌가 굳고 습관이 들어서,
<주와의 소통>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안 한다.

- ◆ <고속 열차>도 느리게 달리는 습관이 들면, 버스같이 다니게 된다.

- ◆ <젊을 때는 뛰고 날아다니더니,
나이가 들면서 점점 게을러진 자들>이 있다.

이제 ‘게으름’ 이 습관이 되어, 게으르게 신앙을 한다.

- ◆ <게으른 자>는 말하기를
“이렇게 사는 것이 본래 나의 삶이다.” 한다.

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는 그렇게도 ‘서는 것’ 을 원하고,
서게 되니 그렇게도 ‘뛰는 것’ 을 원하더니,
서고 뛰게 되었는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.

계속 그러면 <나쁜 습관>이 되어 ‘정상적인 삶’ 이 안 된다.
그러다 결국 ‘우울증’ 이 온다.

- ◆ <과거에 빨리 뛰면서 날아다니던 자>라도
현재에는 게을러져서 걸어 다닌다.

<과거에 게을러서 걷던 자>가
현재에 부지런히 말씀을 행하다 보니 ‘뛰고 나는 자’ 가 되었다.

왜 게을러졌을까? ‘본인이 안 해서’ 다.

왜 부지런하여 날아다니게 됐을까? ‘본인이 해서’ 다.

하면 다 할 수 있고, 고치려면 다 고칠 수 있다.

- ◆ <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필요성>을 느끼고
결단하고 매일 고쳐 나가면, <나쁜 습관>이 잘려 나간다.

- ◆ 새벽 1시에 기도하고 2시간 이상 잠언을 받으니,
무릎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다.

그래서 **3일 동안** 잠언을 받은 후에 누워 있었다.
그러다 잠이 들었다. 그러다 <황금 시간>을 놓쳐 버렸다.

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

“잠언 받고 누워 있는 게 습관이 됐다.
<세 번> 그렇게 하더니, 벌써 ‘습관’ 이 됐다.
어서 <나쁜 습관과 생각>을 고쳐라.
지금 안 고치면 못 고치고 그대로 된다.” 하셨다.

- ◆ <나쁜 습관>이 든 지가
1년이 됐든지, 3년이 됐든지, 10년이 됐든지 **안 고치면**
<육>이 살아서 제대로 못 해 보고 죽고,
그 <영>이 ‘아쉬운 주관권에 속한 영’ 이 된다.

- ◆ 성령님은 먼저 나를 가르치사 나 먼저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시고,
섭리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.

“<각종 나쁜 습관들>이 ‘병’ 같이 자라고 있으니,
<말씀>으로 깨우쳐 주어 ‘수습’ 도 하고 ‘실천’ 하게 해라.”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할 일을 두고 미루는 습관>으로 인해
얻을 것을 못 얻고, 보화를 빼기고, 모르니 기회는 사라진다.

- ◆ 어느 날 <성령님>이 또 ‘새로운 노래 가사’ 를 주셨다.
이에 따라 <하나님>은 그 가사에 ‘곡’ 을 붙여 주셨다.

하나님도 성령님도 ‘새 노래 작사, 작곡의 할 일’ 을 주셨는데,
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며 11시간 동안 미루고 있었다.

이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이제 <이 노래를 받을 기회>가 ‘1시간’ 남았다.

1시간이 지나면, ‘곡’ 이 사라진다.” 하셨다.

즉시 정신 차리고 1시간 동안 ‘새로운 곡’ 을 썼다.

‘일어나 빛을 발하라’ 는 곡이다. 2017년 7월 6일에 지었다.

- ◆ <할 일을 미루는 습관>이 들면, 자꾸 ‘할 일’ 을 미룬다.
결심하고 안 하면, ‘기회’ 는 사라진다.
- ◆ <나쁜 습관과 버릇> 때문에 ‘좋은 기회’ 가 와도 모른다.
- ◆ <방을 안 치우고 지저분하게 두는 자>도 습관이 되어서 그러하다.
- ◆ <자위행위, 음란물, 각종 미디어>도 습관이 되어
거기에 계속 빠져서 산다.

다른 사람은 그 시간에 ‘황금’ 을 캔다.

후에 <나쁜 습관과 버릇의 잠>을 깨고 ‘사망’ 에서 나와서 보면,
<자기가 한 일>을 한탄하며 ‘자기’ 를 원망한다.

<나쁜 습관과 버릇>으로 인해

얼마나 ‘받을 것’ 을 못 받았는지 모른다.

<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받을 것을 받은 자>만 안다.

<귀한 것을 받은 자>가 그것을 말하겠느냐.

- ◆ <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을 받은 자>만 안다.
<못 받은 자>가 그곳에 갈 수 있겠느냐.
- ◆ <휴거의 삶을 사는 자>가 그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안다.
<휴거의 삶을 안 사는 자>가 그 삶을 알겠느냐.
- ◆ <성격이 너그럽지 못하고 사사건건 꼬치꼬치 따지는 자>는
그런 성격을 타고나기도 하지만,
대개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.
- ◆ 주가 말하면 “아멘! 알겠어요.” 하면 되는데,
어떤 사람은 마치 심문하듯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서 대든다.

주를 심문하는 자다.

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여 답을 받았다.

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“그럴 때 ‘그 마음과 사고’를 파악하고 알고 대하고 택해라.
<겉>과 <속>은 다르다.
그때가 ‘그 마음과 사고를 파악할 때’ 다.” 하셨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작품 향아리>도 ‘순간 실수’ 하면 깨져 버린다. 그러면 못 쓴다.

- ◆ 신앙 안에서는 ‘순간 실수’ 해도
<그동안 쌓아 놓은 공적>이 있으면,
신앙이 그대로 가라앉지는 않는다.
<자기 공적>이 ‘자기’ 를 지킨다.
그러나 실수한 만큼 ‘손해’ 는 있다.
- ◆ <전쟁터에서 1년 동안 안전하게 지냈던 자>라도
‘순간의 실수’ 로 죽기도 하고, 다치기도 하고, 그만큼 해를 받는다.
- ◆ <전쟁터이지만 정신일도 하고 생명을 전적으로 관리한 자>는
‘죽음’ 에서도 살았다.
- ◆ 모두 <자기가 처한 환경>에서 ‘신’ 이 되어 <자기 생명>을 지켜라.
<자기가 못 하는 것>은 기도하여 간구해 놓고,
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생명 보호를 받아야 된다.
- ◆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
“가르쳐 주니 누구나 배워서 알고 행하여
얼마든지 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>가 되어라.” 하신다.
<신>에 대해 자꾸 배우고 알고 대할수록 ‘더 위대한 사랑’ 이 된다.
<700선 휴거>를 넘어서
자기를 ‘삼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’ 로 만들고
‘신’ 같이 만들어라.
- ◆ <육신>도 만들어야 된다.

그러나 <육신>만 만들면, 늙어서 써먹지 못한다.

<육>만 생각하지 말고,

<육>이 계속 ‘하나님의 말씀’을 행함으로

<자기 영>을 빛나게 만들어라.

그러면 영원히 빛나게 산다.

<혼>을 통해 ‘꿈’으로 ‘자기 영’을 보아라.

또한 <자기 육의 행실>을 통해 ‘자기 영’을 판단해라.

- ◆ <불의한 습관과 버릇이 든 자>는 의롭게 행하지 못함으로
그 <육>도 그 습관대로 삶이 불의하게 형성되고,
그 <영>도 그 습관대로 형체가 불의하게 형성된다.

형성된 대로 <육>은 ‘평생’ 받고, <영>은 ‘영원히’ 받는다.

- ◆ <나쁜 습관>과 <불의한 습관>을 고치고
<육>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<자기 영>을 잘 만들어 놓으면,
영~~원히 누린다.

<누리는 것>에 비해 <수고한 것>은 1000분의 1도 안 된다.

- ◆ 살아오다가 언젠가부터 <나쁜 습관과 버릇>이 들어서
그로 인해 ‘할 일’을 못 하게 되었다.

모두 ‘정상’으로 돌아가라!

그래야 ‘그동안 얼마나 할 일을 못 했는지’ 알게 된다.

- ◆ <나쁜 습관> 때문에 ‘말’을 막 하고 ‘행실’을 막 하면,
인심을 잃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.

- ◆ 지도자들이 자기 지위를 가지고 상대에게 존칭어를 안 쓰고
“야! 야!” 하지 말아라.

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하느냐.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된다.
회개하지 않으면, 그 죄가 계속 존재하여 행위대로 받는다.

선생은 10대에게도 존칭어를 쓴다.

목회자나 지도자들은 잘 들어라.

나이 어린 자들은 ‘너희의 딸, 아들’ 이 아니다.

<자기 습관>대로 하지 말아라.

하나님도 주도 말했으니, 꼭 고쳐라!

- ◆ <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 잘하는 자들>은
 - 더 빛이 나고,
 - 찬란한 휴거의 영이 되고,
 - 하나님과 주가 그 육신도 경제도 삶도 축복한다.

평강을 빈다.